



무선인터넷망 개방 ‘단초’ 열렸다

사업자간 이견 해소 노력 필요 ... 과금·인증 기술개발·플랫폼 표준화 시급

신선자 자유기고가

무선인터넷 시장 저변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무선망 개방이 가시화되고 있어서다. 유무선 대표기업인 KT와 SK텔레콤이 최근 ‘무선인터넷망 상호접속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고 정보통신부도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무선망 개방 정책을 담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업계에서는 무선망이 개방되면 국내 4000여개에 달하는 무선 CP가 다양한 채널로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무선인터넷 시장 규모가 커져 솔루션 공급업체 및 CP에게 획기적인 수익구조 향상을 가져다 줄 것이라 전망한다.

무선망 개방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망 개방이 무선인터넷산업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진단해본다.

정부, 망개방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국내 무선인터넷 산업은 ‘빛 좋은 개살구’ 같은 형상을 보여왔다. 이동통신 가입자 3000만명을 넘어섰고, 무선인터넷 가입자가 2000만명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기대만큼 발전하지 못했다고 평가된다.

관련업계는 국내 무선인터넷 시장은 세계적인 수준의 기반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만 이동통신사업자 중심으로 비즈니스가 전개돼 저변 확대에 걸림돌이 많았다고 지적한다. 이통사의 폐쇄적 운영이 무선인터넷 산업 발전의 저해요소였다는 얘기다. 실제 엄청난 가입자 규모에도 불구하고 무선인터넷 콘텐츠는 벨소리 다운로드 등 한정된 분야에서 미미한 매출 규모를 보이며 불균형한 수익구조를 보였다.

이런 이유로 인해 관련업계에서는 끊임없이 무선망 개방을 제기했고 정통부는 망개방을 유도해왔다. 무선망 개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해 5월 모바일인터넷데이터센터(MIDC)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KT에서 자회사인 KTF에 무선망 개방을 요구하면서부터다. 이후 지난해 10월 정통부가 ‘무선인터넷망 개방추진계획’을

발표했고, 이를 근거로 업계는 지난해 말경부터 망사업자의 무선포탈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원하는 무선사이트로 접속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1년 넘게 지났던 논의 끝에 망개방은 최근 들어서야 급물살을 탔다. 이제야 KT와 SK텔레콤이 상호접속에 관한 협정으로 망개방의 단초를 열고, 정통부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 고시 예정에 있다.

무선인터넷망 개방을 주요 골자로 한 개정안이 지난해 기획을 거쳐 올해 초 고시될 예정이었으나 결국 상반기를 넘기고 말았다. 정책을 입안한 정보통신부가 이익 기반이 서로 다른 사업자간 합의를 끌어내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 국내외에 구체적으로 시행된 사례가 없고 플랫폼 등의 표준화, 접속기준, 접속대가 산정방식 등 준비사항이 많아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나 망개방의 첫 단추는 꿰어진 셈이다.

유효 경쟁체제 돌입 예고

이렇게 단초를 연 무선망 개방은 무선인터넷업계에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무선망 개방 논리는 간단하다. 이동통신사업자가 독점하고 있는 무선망을 유선통신사업자나 포탈업체, 콘텐츠업체 등 외부사업자에 개방해 무선인터넷도 유선인터넷과 같은 유효 경쟁체제를 만드는 것. 특히 콘텐츠업체나 포탈업체들이 이통사와 동등한 조건에서 사업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줌으로써 이들이 무선인터넷 시장 저변을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게 요지다.

하지만 관련업계는 무선망 개방에 상이한 입장 표명을 보이고 있다. 폐쇄적 운영으로 수익구조 개선에 골몰을 앓던 유선통신사업자나 포탈업체는 급성장이 예고되는 망개방에 적극적이다. 반면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외부 사업자 참여로 통신료 수익이 증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기대를 걸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는 무선인터넷망 투자뿐 아니라 콘텐츠나 관련 애플리케이션 개발까지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초기 시장을 키워놓은 입장이다 보니 망개방이 반가울 리 없는 것. 관련업체들이 끊임없이 망개방을 요구했으나 예상과는 달리 망개방이 늦어진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인터넷 접속 단말기, 접속회선, 접속서비스, 포털서비스, 콘텐츠 서비스, 콘텐츠 사용료 회수까지 각각의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선인터넷과 달리 무선인터넷은 이 모든 것을 이동통신 사업자가 쥐고 있었다. 이동사가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은 물론 ISP이며 포털업체이자 콘텐츠업체 그 자체로 '1인 다역'을 소화해왔다. 이런 사업구조를 개선, 포털업체나 콘텐츠업체가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무선망 개방의 핵심 요체다.

신규 독립무선사업자 등장

정통부가 고시 예정에 있는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은 포털업체나 CP들에는 게이트웨이 수준의 개방을, 유선통신사업자에는 게이트웨이는 물론 망연동장치(IWF) 수준까지의 개방을 보장하고 있다.

이동통신사가 독점하고 있던 무선망이 현재의 유선인터넷망과 같이 개방돼 무선콘텐츠 서비스를 하기 위해 이동통신회사의 무선포털에 의지할 필요없이 독자적인 URL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즉 IWF단에서 개방해 유선 ISP와 같이 무선망접속대행 서비스 사업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동통신회사의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지 않고 독립적인 게이트웨이를 가지고 독립무선포털을 통해 무선콘텐츠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망 개방은 어떻게 진행되나. 현재 무선망은 이동사들이 단말기상의 하드웨어에 자사의 무선망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와 협의 하에 URL을 집어넣어 제품을 출시했기 때문에 바로 가고 싶은 무선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URL을 매번 입력해야 하는 구조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이동 3사는 모두 올해 말까지 이용자가 직접 URL을 입력하거나, 즐겨찾기 등을 구성할 수 있도록 메뉴방식 개선을 추진중이다. 망개방에서 첫 번째로 이뤄지는 작업은 이런 '바로가기' 버튼에 이동사의 무선포털 이외의 URL을 사용자가 세팅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작업은 이동사들이 폐쇄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무선망을 일반 유선사업자나 ISP 업체에게 개방해 어느 누구라도 무선데이터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이동통신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금시스템을 개방해 포털업체들이 독립적으로 유료 콘텐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포털업체나 CP들은 이동통신사 포털의 하위 CP로 등록하

지 않더라도 독립적인 무선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독자적인 포털을 구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과금이나 정보이용료 회수는 이동사나 모바일 IDC의 과금 및 회수 대행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이동사들이 운영하는 포털 이외에 다른 사업자의 포털 서비스로 접속할 수 있는 초기메뉴 개방은 이미 올해 초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숫자도메인 도입을 통해 이동사 포털 이외의 포털로도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선통신사업자는 IWF 개방에 따라 ISP 역할도 할 수 있다. 즉 독자적인 무선인터넷 과금 및 회수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포털업체나 콘텐츠업체들을 자사 무선 IDC로 끌어들이 수도 있다. 또 이를 기반으로 무선 ASP 서비스 등도 가능하다.

관련업계는 이와 같이 무선망이 개방되면 이동사의 무선포털과 같은 신규 사업자들이 늘어나 그에 따라 기존 이동 3사에 서비스하던 무선CP들이 다양한 채널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 수익구조가 개선될 것이라 예상한다. 또한 현재의 열악한 무선CP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게 돼 현재보다 향상된 질의 콘텐츠를 생산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이동통신사들의 게이트웨이가 개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CP 조차 콘텐츠 이용빈도에 대한 통계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정통부의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이 고시됨에 따라 CP들은 자체 게이트웨이 또는 MIDC 사업자가 제공하는 게이트웨이를 이용해 자사의 콘텐츠 이용빈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독자적인 사업구조를 가져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상호접속허용 등 문제 산적

하지만 망이 개방된다고 해서 국내 무선인터넷산업 발전이 기대치만큼 이뤄지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정통부가 개정안 고시를 더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자간 대립을 보이는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개정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으로 개정안을 고시할 계획이지만 사업자간 이견을 좁히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상호접속기준 개정안 고시는 무선망 개방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고 말한다. 고시될 개정안은 유선통신사업자나 포털업체, 콘텐츠업체 등 외부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인터넷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얘기도.

남아있는 쟁점은 무엇인가. 장비 사용에 대한 대가 문제나 통신료 수익 배분 문제, 단문메시지서비스(SMS)의 상호접속 대상 포함 여부, 서비스 약관 문제 등 실제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이 무선망 개방

의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비 사용료와 통신료 수익 배분 문제를 포함한 상호접속료 문제는 앞으로 남은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다. 이동사의 게이트웨이나 IWF를 사용하는 유선통신사업자나 포탈, 콘텐츠업체들은 장비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물론 유선통신사업자나 포탈, 콘텐츠업체들은 장비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대신 이동통신사에서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콘텐츠에서 발생하는 통신료 수익을 배분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장비 사용 대가에 대해 업체간 이견이 크고 특히 통신료의 경우 이동통신사 고유의 몫으로 인식되고 있어 협의가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정통부는 이번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에서 상호접속료를 일단 무정산 처리로 규정하고 있다.

“돈되는 콘텐츠 잡아라”

SMS의 상호접속 대상 포함 여부도 논란거리다. 유선통신사업자들은 이동통신사와 동등한 조건에서 SMS를 이용, 기업 대상 사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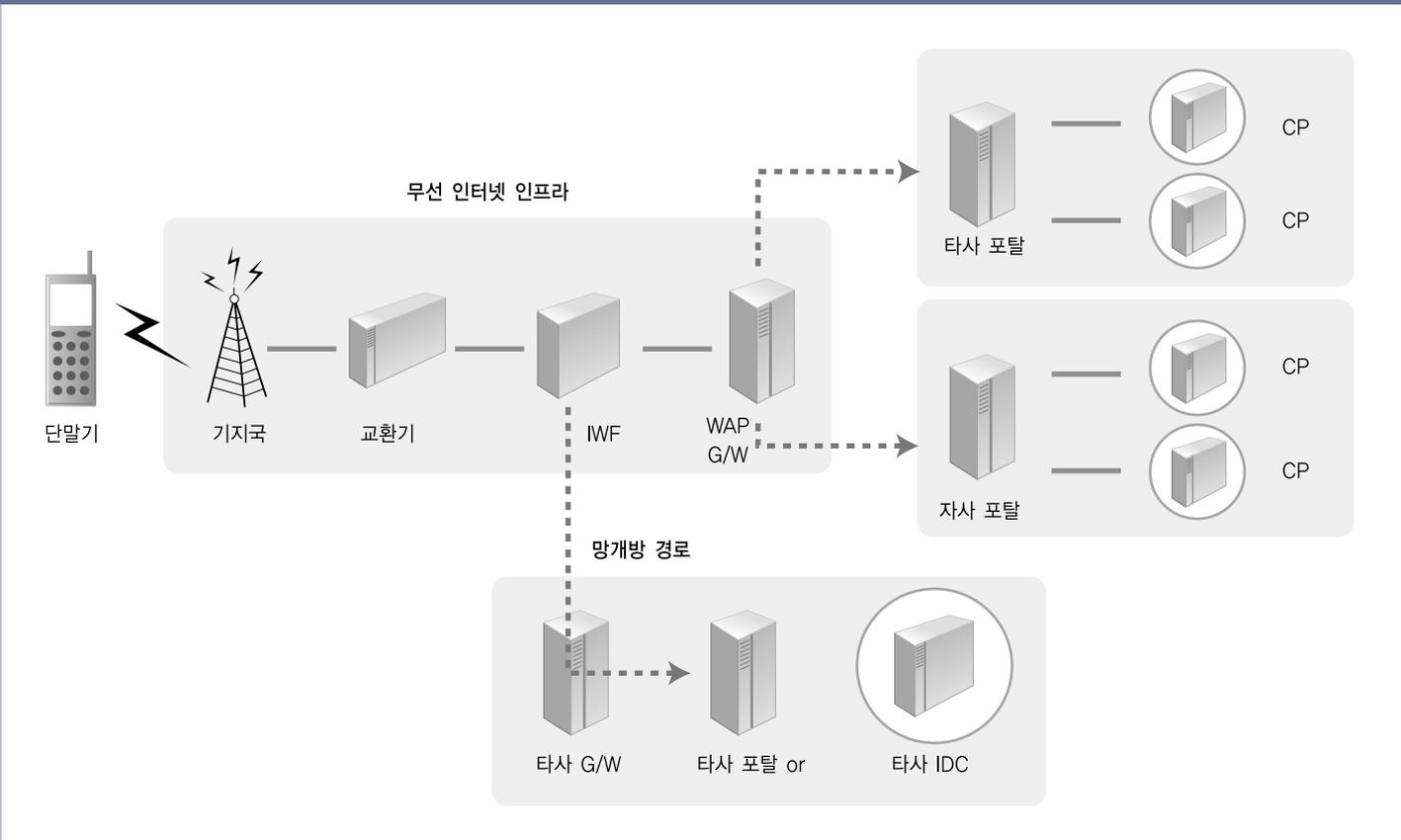
진행하고 싶어한다. 이동통신사의 경우 기존 SMS업체들과는 달리 유선통신사업자들을 대우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무선인터넷에서 유료화되고 있는 콘텐츠에는 텍스트 정보, 캐릭터, 멜로디, 만화, SMS 등의 콘텐츠들이 있다. 텍스트 정보 콘텐츠의 경우는 건당 30원에서 10원 사이고, 사용자가 많이 사용하는 SMS는 건당 30원, 캐릭터는 건당 100원, 멜로디는 200원에서 150원 정도다. 멀티미디어적인 요소를 가진 콘텐츠들이 비싸고 마진이 많이 남는다.

그런데 현재 존재하는 독립무선포탈이 이 같은 서비스를 하려면 반드시 망사업자 서비스 지역에 들어가서 서비스를 해야 한다. 텍스트 정보는 현재도 독자적인 URL로 서비스 할 수 있지만 그야말로 돈이 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이동사 무선포탈내 서비스영역에 등록하지 않으면 독자적인 URL로 전혀 서비스를 못한다는 것이다.

무선망 개방은 결국 무선인터넷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무선CP들에게 다양한 채널로 콘텐츠를 공급함으로써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 양질의 무선콘텐츠를 많이 만들어

〈그림1〉 무선인터넷망 개방 개념도



무선망을 통해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SK텔레콤, LG텔레콤 등 WAP 방식은 게이트웨이를 두고, KTF와 같은 ME 방식은 PAS를 두어야 한다.

* IWF(Inter-Working Function : 망연동장치), G/W(Gateway : 프로토콜변환장치), PAS(Portal access sever : 포탈연결장치)

국내 무선인터넷산업을 발전시키자는 게 목표이다. 하지만 무선망이 개방돼도 망사업자들이 게임, SMS, 캐릭터, 멜로디 등 고수익이 가능한 콘텐츠에 대해 다른 사업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구조를 개방해 주지 않는다면 CP는 결국 현재의 상황과 달라질 게 없을 것이다. 정통부는 SMS 원가 검증 등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통사·포탈간 대립도 쟁점

이통사와 포탈간 게이트웨이 개방 계약의 서비스 약관도 손질을 거쳐야 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현재 이동통신사에서 제시한 서비스 약관에 따르면 포탈업체는 서비스 3개월 전에 이동통신사에 기획안을 포함한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포탈업체는 3개월 전 통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를 1개월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들은 무선포탈 운영 노하우나 CP 모집력에서 뒤지는 데다 이번 망 개방이 게이트웨이 개방에 국한돼 있어 이통사와 대등한 사업을 벌이기 힘들다는데 입을 모은다. 이에 따라 포탈업체들은 게이트웨이 개방을 등록제 형태로 전환하고 플랫폼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포탈에도 IWF를 개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외에 망 개방에 따른 이동통신사의 정보공개범위 수준, 시스템 변경 등에 따른 정산비용 처리 문제 등도 쟁점이다.

무선망 개방시대에 따른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망이 개방되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무선CP는 이동통신회사에 무선망 사용료만 내고 사용자 관리, 과금 등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독자적인 무선콘텐츠 서비스를 위해서는 과금시스템 구축, 사용자관리 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구축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망이 개방되면 이동통신사는 무선망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과금시스템 및 사용자관리 시스템도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실제로 무선인터넷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펼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과금 및 사용자 관리인데 이 부분을 망사업자에게 의존한다면 사업 측면의 완전한 독립은 어렵게 된다. 현재 망사업자가 자사의 무선포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이는 망을 빌려쓰는 독립무선사업자와 경쟁상대가 되는 관계가 성립된다. 같은 시장에서 활동하는 경쟁자에게 정말로 중요한 과금시스템 및 사용자관리 시스템을 의존해야 한다면 자유롭게 사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종속관계 탈피가 관건

업계 한 관계자는 “망을 가진 이동통신사와 독립무선사업자 사이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종속관계가 생겨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

명했다. 설령 망사업자와 대등한 관계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도 현재 망사업자는 사용자 인증부분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망사업자의 무선포탈에 접속시 사용자 인증이 자동으로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현재 이동통신회사의 무선포탈에 접속하려면 사용자는 사전에 해당 무선포탈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용자가 이통사의 포탈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휴대폰의 정보를 이동통신회사의 무선포탈 인증서버에 보내 인증과정을 거치게 되고 바로 아이디 및 패스워드 입력 없이 해당 무선포탈에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하지만 독립무선사업자가 이동통신회사에게서 종속성을 완전히 탈피하기 위해 모든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구축하고 무선망을 빌려 쓴다고 가정하면 자사의 회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용자 인증을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망을 보유하고 있는 이통사와 달리 반드시 자사의 회원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독자 인증이 필요한데 사용자는 매번 휴대폰으로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결국 사용자가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독립무선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지는 미지수다.

현실적으로 사용자에게는 해당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있어 상당한 장애요인이 된다. 아이디 최대 8자리, 패스워드 최대 8자리를 입력하는데 16번, 아이디 입력 후 패스워드 창으로 전환할 때 1번, 그리고 전송버튼 1번까지 합치면 무선포탈에 접속하기 위한 키 조작 횟수는 모두 18회가 된다. 반면에 이통사의 무선포탈 접속시는 단 한번의 키조작이면 족하다.

즉 무선망 개방이 됐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독립무선사업자의 비즈니스가 그리 쉽지는 않으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유선통신사업자나 포탈업체, CP 등은 이번 망개방을 새로운 기회로 여기면서도 당장 이동통신사 중심의 시장구조가 변화하거나 무선인터넷사업으로 획기적인 매출을 올리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정통부 무선망개방에 따른 개정안이 무선망 개방을 촉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의 범위나 수준이 더 확대돼야 이동통신사와 대등한 경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독립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면 사용자가 불편해 여전히 망사업자에게 종속돼야 하는 골치아픈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업자간 이견이 좁혀져야 진정한 ‘무선망 개방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과금·인증 등 기술문제 해결해야

이런 이유들로 무선망이 개방되면 곧바로 무선인터넷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무리한 기대는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선인터넷산업이 발전하려면 무선망 개방 외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쟁점들이 수두룩하다.

이런 산재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우선 이동통신사의 무선인터넷 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동통신사가 무선인터넷 사업을 분리해 음성통신 시장과 무선망의 임대 및 과금시스템 ASP, 사용자관리 ASP에만 개입하는 형태가 되어 새롭게 생겨나는 무선인터넷 사업자와 사업구조상에서 부딪히는 갈등 요소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두 번째로 무선인터넷서비스에 자동로그인 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현재 무선포털 접속은 이동통신사의 유선포털에의 가입을 의미하는 체제이다. 이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독립무선사업자 또는 CP가 자사의 회원 데이터베이스로 별도의 인증처리를 할 수 있는 자동 로그인 기술이 무선망 개방과 동시에 시장에 공급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하는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 많은 키를 사용자가 눌러야 하고 결국 사용자는 이에 지쳐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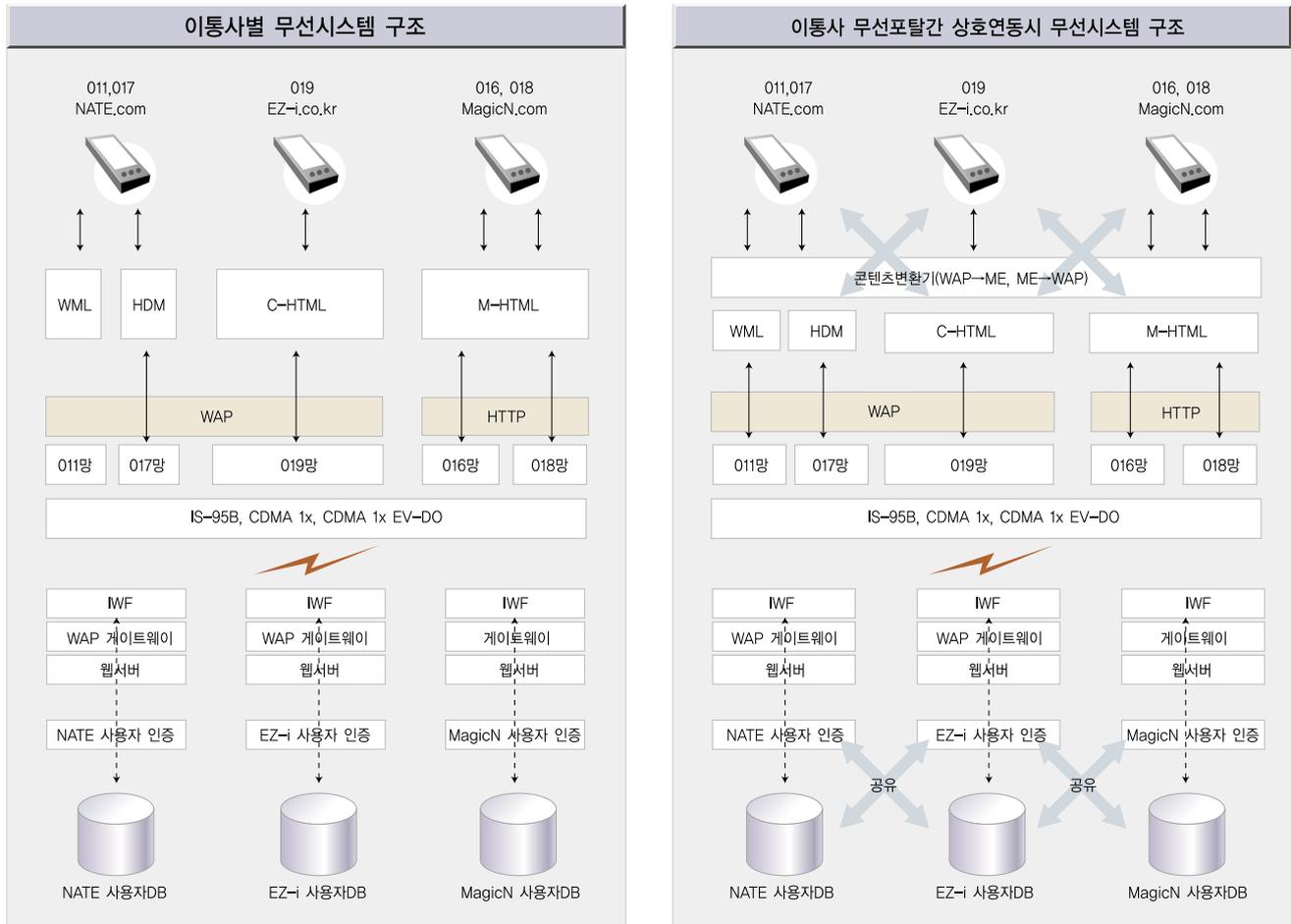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선인터넷과 같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한번만 입력하면 저장돼 인증시 매번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4월 중순경 개시된 무선콘텐츠를 번호로 표현해 접속하고자 하는 콘텐츠URL을 입력하는 '숫자도메인서비스'는 이런 자동로그인 기술 개발의 촉발이라 할 수 있다.

이동통신회사 무선포털간의 상호접속허용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무선망이 개방되면 'NATE' 사용자가 'MagicN' 사이트에 접속해 콘텐츠를 볼 수 있어야 망개방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의 무선포털간 상호접속은 문제를 안고 있다. 각 이동통신사는 무선포털에 사용자접속시 자사의 무선포털 사용자인가에 대한 인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즉 NATE 무선포털 사용자는 www.nate.com에 사용자로, MagicN 무선포털 사용자는

[그림2] 이동사 무선포털 상호연동시 무선시스템 구조



www.magin.com에 사용자로, ez-i 무선포탈 사용자는 www.ez-i.co.kr에 사용자로 등록이 돼 있어야 해당 무선포탈에 접근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무선망이 개방된다 하더라도 이통사의 데이터베이스를 상호공유하지 않는 한 무선포탈간 상호접속은 요원하다. 또한 011, 017, 019는 WAP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016, 018은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어 당장 서로의 통신 프로토콜이 다르다. 설령 사용자 데이터베이스가 공유된다 하더라도 011, 017, 019 사용자가 016, 018 무선포탈에 접속했을 때 제대로 된 무선페이지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인 경우에도 ME 브라우저로는 아예 WAP 콘텐츠를 볼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난다. 즉 상호간 무선포탈 접속이 가능하려면 콘텐츠 변환, 인증 과정 등에 대한 사전작업이 뒤따라야 한다는 얘기다.

무선인터넷 플랫폼 표준화 시급

마지막으로 무선인터넷 플랫폼의 표준화가 시급히 해결돼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CP들은 무선망 개방 연기론도 주장했다. 무선망이 개방되면 독립무선사업자가 나오게 될 것이고 무선CP들은 현재 이통 3사의 요구사항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기도 힘들운데 더 많은 사업자들이 각기 원하는 사양에 맞춘 콘텐츠를 개발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초래할 거라는 우려에서다. 무선인터넷에 대한 표준 등이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서 망개방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무선인터넷에 대한 여러 가지 표준화가 조기에 선행되고 나서 그 범위 안에서 망개방이 시행돼야만 무선CP들과 단말기 등 솔루션 및 장비업체들이 망개방에 따른 원활한 서비스를 준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무선인터넷플랫폼을 표준화한다는 방침아래 지난 4월 WIPI라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통신사업자들에 이를 채택해줄 것을 요구, 이달 내에 WIPI를 탑재한 단말기를 발표할 계획이라 밝힌바 있다.

WIPI가 이동통신회사가 서비스할 단말기에 단일 플랫폼으로 채택된다면 망 개방과 단일 무선인터넷 플랫폼에 힘입어 콘텐츠 개발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이나 여기에도 갈등의 요소가 많다.

통신사업자들이 “플랫폼마다의 고유한 특성이 경쟁력의 주요한 원천인 데다 플랫폼이 급속히 개선,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실정을 무시한 플랫폼을 표준화하는 것은 무선인터넷산업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한다”고 주장, 자사 고유의 플랫폼을 고수하려는 뜻을 강력히 내비치고 있어서다.

실제로 SK텔레콤은 올 하반기부터 자사 고유 플랫폼인 ‘위탑’을 채용한 제품과 WIPI를 채용한 제품으로 이원화할 계획이다. KTF와

LG텔레콤도 각각 기존 고유플랫폼인 브루와 자바를 계속 채용하고 대신 WIPI를 채택한 제품도 함께 공급할 계획이다.

통신서비스사업자들의 이 같은 방침으로 단말기업계는 그동안 사업자마다 1개씩만 탑재하면 되던 플랫폼을 하반기부터는 두 개 이상씩 탑재해야 하는 실정이다.

단말기업계에서는 “자바를 제외한 플랫폼은 소스코드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탑재에 더 어려움이 크다”며 “무선인터넷플랫폼 표준화가 플랫폼 수만 늘려 단말기업체만 힘들게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무선인터넷플랫폼 표준화를 놓고 정통부와 통신사업자간 갈등이 단말기업계로 불뚱이 튀겨 불투명한 표준화 정책을 낳아 플랫폼 수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가 시급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무선망 개방에 따른 무선인터넷 시장의 저변 확대가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무선인터넷 성장의 단초

이와 같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우리나라는 무선인터넷산업이 활성화된 나라 중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무선망을 개방하는 나라가 됐다. 무선인터넷이 일찍부터 발달한 유럽지역 국가 및 일본도 망 개방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예는 거의 없었고, 망 개방이 있더라도 한 나라 내에서 일부 이동통신사업자 뿐이었다.

‘i-모드’ 등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며 가장 다양한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선보인 일본도 내년 가을경에나 무선망을 개방할 것이라 발표했다.

무선망 개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현재 국내 무선인터넷 경쟁구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무선망이 개방되면 이동통신사의 무선포탈 주도권 하에 놓여있던 무선인터넷산업의 중심축이 유선통신사업자, 독립무선포탈사업자, 방대한 고급 콘텐츠를 보유한 CP 등으로 경쟁구도를 분산될 것이다. 그러나 역시 이동통신사가 그 동안에 투자한 막대한 비용과 현재 보유중인 무선콘텐츠, 강력한 마케팅 능력, 그간의 인지도 등으로 망개방 이후 1, 2년간은 기득권을 지킬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첫 단추를 꿰 무선인터넷망 개방.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고, 사업자간 이견 대립도 많아 초기에는 진통을 겪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업자들의 경쟁구도를 심화시켜 전체적으로는 산업성장을 가져올 시발점이 된다는데 이견을 갖는 이는 없다.

경쟁구도가 심화되면 그에 따라 갈수록 질 좋은 새로운 콘텐츠가 경쟁적으로 나타나 무선인터넷 서비스 향상 및 기술의 발전을 이끌어 내 산업성장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